그 사람 지금은

(8) 손 철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

"건강,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70년대 중반 뇌염이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100명 이상 넘쳐나는데 전남도 보사당국으로부터 함구령이 내려왔어요. 어이가 없었죠. 가끔 언론에 흘려보냈어요. 그래야 방역이 제대로 이뤄질 것 아닙니까?"

국내 '소아과 전문의 2호'인 빙하(氷下) 손 철(87)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분을 삭이지 못한다. 수출지상주의 시절 국가 무역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당시 서슬퍼렀던 독재정권은 전염병 발생 사실 조차 쉬쉬했다.

"당국의 말을 듣지 않자 보사부 국장이 내려와 사정하기도 했죠. 대학병원에 데리고 가 '이렇게 날마다 몇 사람씩 죽어나가는데 나보고 입다물라는 얘기냐'고 항변했죠.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이 자리에만 연연해하던 공무원들이 지금도 원망스러워요"

뇌염에 걸리면 반은 죽고 반은 후유 장애에 시달리던 시절이었다. 뇌염환자만 5천여명을 진료했다는 그는 "현존 의사들 가운데 가장 많이 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어린이들에게 보람을 걸고 살아온 소아과 의사로서 그는 약 안 쓰고, 주사 안 놓기로 유명했다. 그 이유는 간명했다.

70년대 중반 뇌염 창궐
정부 함구령에 강력 항의

"내가 먹지 않으니 환자에게도 안 먹이는 것"이란다. 그만큼 약의 오남용을 경계해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하면 보약을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실은 화학적 이물질이 대부분"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손 옹은 "지금 의사들은 아동들에게도 무조건 약 주고, 주사 놓고 하는데 가장 흔한 감기 정도는 가만놔둬도 1주일이면 나을 수 있다"며 이같은 과잉 진료에는 제약이 많은 의료제도와 어머니의 불안감이 한 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태어난 곳은 황해도 서흥(瑞興)이지만 판사였던 부친(손 영)이 변호사 개업을 했던 장흥에서 유소년기를 보내 이 곳이 고향이나 다름없다. 당시 제일고보(경기중)를 졸업하고 1939년 중국 산동성 청도의전(靑島醫專)에 들어갔다. 1943년 졸업 후 현지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일하면서 무의촌을 찾아 의료봉사도 하고 광복군들도 보살피다 광복군 제3지대 청도순견대 군의처장 직함을 갖고 1946년 2월 귀국했다.

귀국 후 은사의 소개로 광주의대(전남대 의대 전신)학장이던 최상채 박사를 만나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당시 박봉의 교수들에게 야간 개업이 허용되자 광주시내에서 '손소아과'를 수년간 운영, 유명세를 탔다. 6·25가 터지면서 중위로 임관돼 제5 이동외과에서 복무했다. "포로 진료와 교환에 기여한 공로로 은성화랑무공훈장까지 받았지"

전후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그는 베트남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74년 한월의료사절단 소아과자문관으로서 월남에 건너가 사이공 민두크의대 임상교수로서 진료와 교육을 병행했다. 이후 제 11대 대한소아과학회장과 전남의대 간호대학장을 지냈다.

약 력

- ▲1920년 1월 9일 황해도 서흥 출생. 장흥서 성장
- ▲장흥소학교·경기중·중국 청도의전 졸업
- ▲전남대의대 교수·한월의료사절단 소아과자문관
- ▲대한소아과학회장·전남의대 간호대학장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속의원장
- ▲은성화랑무공훈장, 대한소아과학회 학농상

하지만 1985년 정년 퇴임 이후엔 개업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자 "내 방식대로 하면 하루에 10명도 채 못보는데 그렇게 해서 병원이 운영되겠어?"라고 반문했다. 그 대신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속의원장과 목포골롬반병원 고문으로 10여년 이상 일했다.

'의사는 베푸는 직업'이라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무료로 진료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내도록 해야 해"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 위로 의성(醫聖) 히포크라테스의 이미지가 겹쳐진다. 유머와 위트를 즐기는 소탈한 면모에 따르는 제자들이 많다. 200여명이 넘는 후진들 중 전남대 의대 황태주·최영륜·우영종 교수를 애제자로 꼽는다.

1940년대 초반 중국 청도의전(靑島醫專) 재학 시절 교수 및 동료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손 철 박사.

손 옹에게는 수필가, 음악애호가, 낚시인 등 각종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배구선수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고 원없이 세계여행도 다녀왔다. 팔방미인이 따로 없다.

1951년 조선대 교수였던 시인 김현승, 박 흡 등과 함께 동인지 '신문학'을 발행하며 광주 문단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남문협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학창 시절부터 신문 등에 써왔던 그의 재기발랄한 글들은 문집 '철(哲)1·2'권에 담겨있다. 미수(米壽)인 내년 2월엔 '철3'을 펴내기 위해 원고를 이미 인쇄소에 보냈다.

"아동들에 약 오남용 심각
부모들 과잉 불안도 한몫"

손 옹은 또한 스스로 "낚시가 없었으면 진즉 죽었고, 음악이 없었으면 진즉 미쳤다"고 할만큼 두 분야의 매니아다. 한때 2천여장의 클래식 음반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발레음악 위주로 하루 3~4시간씩 음악감상에 빠져들곤 한다. 학창 시절 부터 두각을 보인 배구 실력을 바탕으로 대한배구협회 이사 및 전남지부장으로서 선수 양성에도 기여했다.

'별난 의사'로서 건강과 병에 대한 해석도 독특하다. 그는 병을 '건강+'라고 푼다. 건강에 더해진 우수리이기에 병조차도 오순도순 보듬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건강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며 오래도록 사는 것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스스럼없이 토해내고 자유로워야 한다" 지인들은 그를 '만년 청년'이라고 부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무주 적상산성

붉은 절벽 둘러싸인 호남 3대산성
거란·왜구 침입 때 백성들 피난처

전라도 땅 북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무주를 찾았다. 광주에서 가는 길은 새로 놓인 대전-통영간 고속국도를 이용하니 2시간 남짓이다. 덕유산 구천동 33경과 열 해를 거듭해온 반딧불 축제로 유명한 무주. 이번 여정에는 장성 입암산성, 담양 금성산성과 함께 호남3대 산성으로 알려져 있는 적상산성에 머물렀다.

적상산(1034m)은 무주읍 남쪽과 덕유산 향적봉(1612m)에서 북서쪽으로 각 10㎞ 정도 거리에 있는 봉우리다. 중생대 적색계통 퇴적암이 산 중턱에 높이 400여m의 절벽을 이루며, 띠처럼 둘러져 있으니 붉은 치마 곧 '적상(赤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옛 사람들이 험준함을 이용하여 성을 만드니 겨우 두 줄기 길로 오를 수 있을 따름이요, 그 안은 평탄하고 너르며 냇물이 사방에서 솟으니(못 4곳, 우물 23개) 참으로 하늘이 만든 요새다. 거란과 왜구가 침입하여 약탈할 때 근방 수십 군의 백성들이 모두 여기에 의지하여 목숨을 보전했다. 최영은 산성(山城)을 쌓고 창고를 지어 만일에 대비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라고 기록돼 있다.

나제통문이 있는 무주는 동부 신라 땅을 무산, 서부 백제 구역을 적천(赤川) 또는 단천(丹川)이라 했다. 이후 무풍(茂豊)과 주계(朱溪)현이 되었다가 1414년(태종 14년) 통합하여 첫 자를 따 무주(茂朱)로 칭해 '붉은 벼랑이 울타리 진 고을'로 풀이되니 적상과 의미가 통한다.

북창리 적상산성 안에서 바라본 사고(史庫)와 산정호수인 적상호.

적상산성은 둘레 8,143m 높이 2m 규모로 1965년 사적 제146호로 지정됐다. 동서남북 성문 중 북문과 서문은 2층 3칸으로 밝혀졌다. 고려 때 산성 안팎에 안국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역대신록과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역할도 주어졌다.

1614년부터 산성 안에 11칸 실록전, 6칸 선원각, 승장청, 군기고, 화약고, 수사당, 문루 따위가 차례로 들어섬으로써 적상산사고의 기틀이 잡혔다.

사고(史庫)는 임란 전에는 읍성 4곳에 있었으나, 이후에는 춘추관 외에 외사고로 강화 정족산, 묘향산, 태백산, 오대산에 두었다. 1633년 묘향산 사고는 후금 침략에 대비하여 적상산성으로 이전한다. 1643년 호국사를 창건하여 승병을 양성, 산성과 사고를 지키게 한다. 1674년 무주는 도호부로 승격된다.

1910년 실록은 구황실문고로 편입 창경궁 장서각으로 옮겨졌다. 사고와 안국사는 무주양수발전소 상부댐 공사로 수몰되니 1992년 위로 옮겨졌다. 1995년 적상산 기슭 해발 850m에 건설된 무주양수발전소는 산정호수인 적상호에서 하부댐으로 600여m의 낙차를 이용하여 60만kw의 전기를 생산한다. 전력홍보관에 바라본 적상이 가을 단풍에 더 붉고, 근처 식당에서 맛본 무주인의 향초(香草) '고수'가 진하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